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뉴욕 해안 회복력 프로젝트의 주요 구역 개방

<https://www.nyc.gov/site/escr/index.page>

<https://www.nycgovparks.org/planning-and-building/planning/neighborhood-development/east-side-coastal-resiliency>

https://www.linkedin.com/posts/nyc-department-of-design-and-construction_proud-to-join-our-partners-in-celebrating-activity-7378448945653637120-y1KZ

<https://big.dk/projects/east-side-coastal-resiliency-4993>



뉴욕시 ESCR 프로젝트 영역

출처: NYC The East Side Resiliency Project. (n.d.)
About. <https://www.nyc.gov/site/escr/about/about.page>(검색일: 2025.11.28.)



이스트리버 공원 남쪽 개방 공간

출처: NYC CDD et al. (2025.9.8.).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2025 Phasing.

미국 뉴욕시의 동부 해안 회복력(East Side Coastal Resiliency: ESCR)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이스트리버 공원(East River Park)의 주요 공공공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ESCR 프로젝트는 뉴욕 맨해튼 동부의 약 2.4마일 구간에 홍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storm surge) 등의 재난 피해에서 약 11만 명의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방벽과 배수 시스템 구축 등 방재 설계의 적용을 넘어, 공원 공간과 커뮤니티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조경과 여가 공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SCR 프로젝트의 목적 및 이점

- 재난 대비: 향후 폭풍해일과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홍수 위험 저감
- 접근성 개선: 지역 커뮤니티와 해안(수변) 간 연결 동선 확대, 무장애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 공공공간 강화: 회복탄력적 설계 적용, 레크리에이션 시설 현대화, 다목적 이용 공간 확대, 신규 시설물(편의시설) 도입, 생태적으로 다양한 식재(조경)를 통해 환경의 다양성 제고

이번에 개방된 공간은 이스트리버 공원의 남쪽 구역으로, 지반을 8~9피트 높이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600그루가 넘는 나무와 2만 1,000여 본의 식물이 식재되었다. 새로 마련된 시설로는 농구장과 테니스 코트, 피크닉 공간, 잔디밭, 인조잔디 운동장, 물놀이 구역과 새로 재건한 원형극장이 있다. 들랜시가(Delancey Street)와 콜리어스 후크 공원(Corlears Hook Park)에는 보행자 전용 다리 2개가 새로 설치되어 수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ESCR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이스트리버 공원 북쪽 구역은 공공시설 및 방수벽 공사 등을 위해 폐쇄되어 있으며, 대상지에 대한 순차적인 개선과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뉴욕시는 이러한 단계적 추진을 통해 공사와 공공공간 폐쇄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